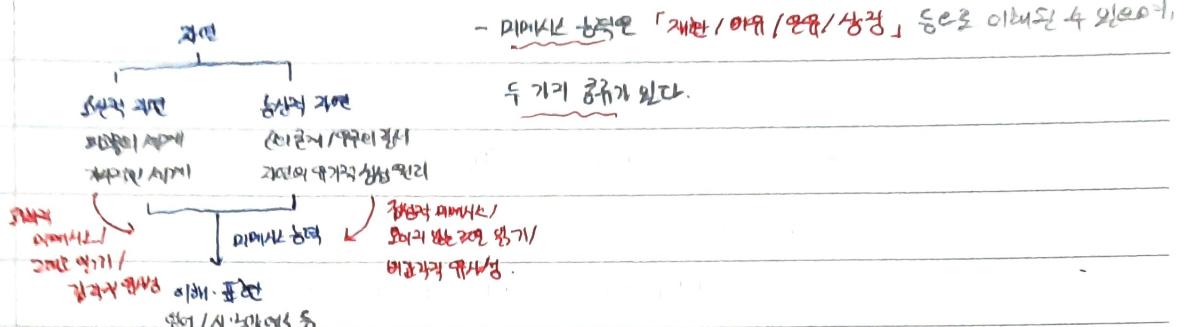


# 문학과 철학의 대화, Prof. 강원우 / 2021-3-17 / 김기현 교수님, <리메이크 능력에 대하여>, II / 1.

## ④ 일터에서의 권리 <미래시즌 농력>



① 갈각적 유사성(갈각적 미매스) - 소신적인 자연주의 유사성 파악 노력.

ex) 과학에서 자연을 관찰하는 기술을 언어 기호로 옮겨 기록 (자연 - 언어 기호의 유사성)

다음 표면으로는 '고백적 미애시선'(?) 그대로 놓기라 표면 가능할 듯.

② 베갈리역 유사성 (베갈리역 이베시스) ... 능선적인 자연구역의 유사성이 퍼져 능선

ex) 고대 결승을 떠나 천개의 꽃길과 그 속의 길사로 예언을 행함 (천상의 길사 - 현상의 꽃길)

... 다른 표현으로는 '점성(進)적 미에시스'(?) 모이지 않는 것을 냉기라 할 수 있을 듯

\* 굳이 푸가루의 관점과 달리 벤야민의 <미래사능력>을 생각해보면

- 강박적 미매너스: 혼성 → 인위로의 모방과 연습.
  - 비강박적 미매너스: 이데아 → 혼성 → 인위로의 모방과 균형.

## 부산 현대 '근대 <인간의 능력>

## ① 이성(理性)

## ② 감성(감성, -- 으뜸을 이룬다--)

② 상상력 -- 현실에 긴밀하게 맞는 그림을 생각하는 능력.

제 ④ 디자인 품격 (도형-형태) ... 모양은 세계의 도형, 모든 모양은 세계를 통한 예술과 예술 세계의 도형.

× 구조: 세상 만물은 1가지 둘을 통해 파악한다고 주장(논리)

국민에게는 능력의 대상 | 차격으로는 「자연(연관 표준)」 ... 감각적 미매시스

더 균형적으로는 21세기의 모이지 만드는 세계(국민권 등) — ① 경각제 미래시사

- 3 '기억을 소비하는 경제!', '기억과 물질이 만들어 세계를 바꾸려는 경제' 모두가 「기억에서의 경제」에 포함된다.

- 따라서 나의 강간의 대상 - 그 '지역'은 '지역 뒤 유미지 넘는 세계'를 표현하려고 하는 경향

각각 「문화+인문학」과 「생활+미래학」을 시행하게 될 것임

|    |   |
|----|---|
| #  | <p>문제 2 학제적 대화, Prof. 강우성 / 2021-3-17 / 박터 브리튼 &lt;미에스 능력에 대해서&gt;, II. / 2.</p> <p>* 고대의 「점성학이 지배하는 세상」과 현대의 「과학이 지배하는 세상」에서의 미에스 능력에 대한 차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고대: 「마법적인 능력」</li> <li>- 「자연을 조망하는 능력」 + 「자연 원리 묘사의 만능 세계를 파악하는 능력」은 사계, 천상에서 등 속의 사람만이 가지고 있었음 (소수만이 원천한 미에스 능력을 가짐)</li> <li>◦ 근·현대: 언어·기술의 발달 → 지식의 보편화</li> <li>- 언어를 통해 지식이 보편화되면서, 개개인의 지식을 열고 풍요로울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됨.</li> <li>- 따라서 실내적으로 소화된 미에스 능력이 대중적 가능성을 가짐<br/>(대중이 원천한 &lt;미에스 능력&gt;을 가질 수 있는 기회↑)</li> <li>- 실내적으로 「시각·경상술」의 중요도 ↓. 누구나 이를 미에스 능력의 일환이 가능하도록.</li> </ul> <p>* 현대의 &lt;미에스 능력&gt; : &lt;미에스 능력&gt;은 변화하나, 확장되나?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지향·원성적 시각(언어 관계라는 측면): <u>인정</u> 조건은 갖추어지면 누구든지 얻을 수 있는 &lt;미에스 능력&gt;<br/>↳ 언어<br/>⇒ &lt;미에스 능력&gt;은 확대·변연.</li> <li>- 지향·원성적 시각(개인의 측면): 예전의 &lt;미에스 능력&gt;은 사용 언어가 굳어있으나 ⇒ &lt;미에스 능력&gt;은 확장.<br/>... 어린 아이가 기관 원로의 &lt;미에스 능력&gt; 아래도 언어를 사용하여 악티.</li> </ul> |
| II | <p>언어와 &lt;미에스 능력&gt; : &lt;미에스 능력&gt;의 영역에 대한 변화</p> <p>* &lt;미에스 능력&gt;과 언어가 생활할 때의 언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→ 「언어」를 「기호」로 해석: 「두구」, 「기술」로의 언어라고 보는 시각.<br/>(일상적 의미: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) ↗ 확장</li> </ul> <p>* 기호와 간접적 접촉: 역사적으로 보는 언어의 가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지식은 누군가가 감각·지성으로 체험한 경과를 체제화한 것이다. 이를 언어(특히 문자)의 형태로<br/>내주면 가능성이 될 수 있다.<br/>⇒ 「실제로 경험하지 않은」 이도 「기록을 통해」 알 수 있게 됨. 즉, 간접적 접촉에 가능해짐</li> <li>- 언어는 「기억」이라는 개인의 능력을 기록의 형태로 두고.</li> </ul> <p>* 생체: 누군가의 경험을 공유하고 범주화로 공유 &lt;미에스&gt;를 해결 가능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... 언어를 통해 오히려 &lt;미에스&gt;는 그 속에 내재되어 사용권을 확장·발전됨</li> </ul>   |

# 문학과 철학의 대화 Prof. 강재성 / 2021-3-17 / 벤더 밴더민 <미메시스 능력의 대화>, II / 3.

\* 언어로 인해 대화의 <미메시스 능력>이 치외화되기도 한다는, 그 형식이 바뀐 것인가?

(철학·문학·미술적 <미메시스> → 언어를 통한 <미메시스>로의 변화)

- 언어가 '기표'라는 대상에서, 언어에 음성적 음자·음성적 언어+이미지+소리 등을 모두 포함시키면,

이 언어는 대상의 <미메시스 능력>이 새로운 차원을 말이하게 해 준다 → 벤더민의 생각.

\* 현대의 언어를 통한 <미메시스 능력>과 문학·예술, 그리고 과학.

○ 언어를媒介로 한 여러 능력 중 <미메시스 능력>이 가장 타당하게 변화되는 영역?

→ 「문학과 예술」은 (이들을 보다 비범적인 깊도를 기울여보로, 원초적 <미메시스 능력>이 더불어지 (통합됨)

↳ 문학과 예술은 개별적 차원에서 쇠퇴하는 <미메시스>가 새로운 차원을 소개해 주는 중요한 역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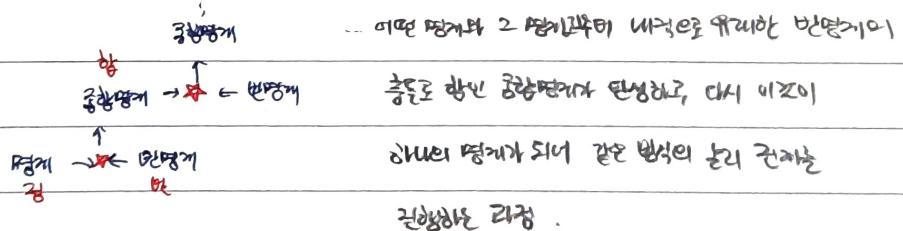
\* 적용: 과학을 통한 과학의 추적, 예술과 문학을 통한 비범기적 기호로 차이가 무엇인가?

↳ 두는 <미메시스 능력>의 사용·발전이라는 면에서 동등하지 않나?

- 과학, 그리고 문학·예술은 모두 신화적 세계로부터의 단절/탈피를 일으킨(거창)

- 다만 과학은 이 신화적 세계회의 「원천 단절」을 추구하나, 문학·예술은 어느 정도 인정·포용하면서  
정의 차이점.

\* 미술의 현대성, 구조 (광-온-향)



### III 언어의 「기표·기의」와 <미메시스 능력>

\* 언어의 「기표·기의」

기의 → 예술 의미의 조건.

- 기표: 의미를 상징하는 음자·음성학적 표현, 등.

이것은 대체로 문장이다.

- 기의: 기표가 지시하는 아. 즉, 기표가 의미하는 계급.

기표

- 현대의 '기호'로서의 언어는 음성·시각적 의미가 모두 결합됨.

- 기의에 대한 기표는 다양할 수 있다.

ex) tree, 나무, 树木 등은 기의를 가진다.

\* - 예술의 기연의 철학적·음성학적 표현의 <미메시스>는 이미 언어 속에서 <기표>,<기의> 사이의

비교적 예술성으로 표현되는 것인가?

# 문학과 철학의 대화, Prof. 김우성 / 2021-3-17 / 밀터 번역본, <미에스 능력에 대해서>, II / 4

→ 이제는 시급들은 <언어>의 사용 과정에서 자연히 <미에스 능력>을 사용하는 셈.

\* 쓰여지지 않은 것은 말이내는 능력(행간 냉기)가 학제의 언어와 격차로 ~~중요한~~ <미에스 능력>이며,  
부록처럼 <미에스>

이것은 우리가 가진하는 세로운 '언어' 하의 <미에스 능력>.

~ 기쁨에 격득된 거의 이상의 기억을 파악하는 능력의 향수가 필요

↳ 그러므로 "쓰여지지 않은 글의 냉기"가 가장 드러난 암기법.

(언어는 이제 미에스적 태도의 최고 단계가 됨)

\* 따라서 미에스 = 중요성의 완전 능력인 셈.